

촌지 기록부 '유감'

교재택탈 비리로 교육방송 교원계자들이 혼란이 난 데 이어 교사 촌지 문제가 터져나왔다. 우선 고생하는 교사들이 무고하게 휩쓸려 욕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촌지가 주로 도시 중산층 지역의 문제임을 밝혀두자. 예컨대 농촌지역이나 빈민층 거주지역에서 촌지는 눈을 씻고 찾아볼라야 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문제교사로 찍힌 '참교사'

5공화국 6공화국 시절에 이른바 문제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이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에게 하달된 적이 있었다. 그 의식화 교사 식별법의 첫항목이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였다.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는 일단 사상이 불온한 의식화 교사로 간주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해프닝은 교직사회에서 교육관료들의 의식 속에서 촌지가 얼마나 당연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교사는 당연히 촌지를 요구받고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교사는 문제교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직사회,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크게 달라져 있지 않다. 그래서 촌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문제교사들은 서울 강남의 학교로

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역시 크게는 교사 학부모의 자성을 통해서 푸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학교가 대학입시에 매여 입시산업화한 데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다. 학교의 입시산업화는 교육관료사회의 상층부터 아래까지 일종의 이권커넥션을 만들어나간다. 촌지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지 체계적으로 촌지를 행하는 기업형 촌지 수수는 주로 집안에 교육관료가 있거나 집급하기 위해 학교에서 줄을 대고 있는 교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교육관료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권커넥션의 관행들 그러한 관행의 여파로 나타나는 기업형 촌지수수는 엄밀히 말하면 촌지 기록부

야 할 것이다. 촌지를 억지로 떠안기는 학부모에게 이후 촌지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돈으로 반 아이들에게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이다. 촌지가 자신의 아이에게만 알게 모르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촌지를 가져오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고려나 교육적 고려는 없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적 자성 또한 중요하다.

학부모들의 교육적 자성

세번째로는 교사의 경제적 처우가 지나치게 낮은 점이다. 혼자 버는 경우는 실제로 생활이 곤란하다. 대도시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80년대에는 교사들의 채택료 안받기, 촌지 안받기, 보충 자율학습 안하기 운동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다. 지금은 촌지나 채택료를 안받는 이른바 문제교사들도 그러한 운동을 벌일 수가 없다. 검정짜이 하면서 수동적으로 촌지나 채택료를 받는 동료교사에게 무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봉급만으로 생활이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몇달전 국회 교육위 소속의 모 국회의원에 교육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봉급도 올려주고 노동조합도 인정해 주어야 하잖아?" 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촌지 문제의 해결은 다는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



김진경 (시인·교육평론가)

국가 이기주의의 팽배

金대통령 '남북협력 DMZ 보존' 제의

유엔환경특별총회 '푸른지구 지키기'

세계 185개국 정상 및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유엔환경특별총회(6월 24~27일)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총회 첫날 '세계화시대의 환경협력'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유지와 환경생명의 보금자리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DMZ 생태계보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출과 관련, "지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월경성(越境性)을 크게 경계한다"며 우리 정부의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번 유엔환경특별총회는 92년 리우환경특별회의에서 선언한 '의제21'의 실천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행동강령 채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지구환경보존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푸른 지구 가꾸기'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에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대통령이 제의한 핵폐기물 국외반출 반대에 대해서 미국 일본 등은 처리시설을 갖춘 나라로 옮겨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개발한 환경기술과 제품을 비싸게 사다 쓰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회후의 이후에도 지구환경은 계속 악화되었다. 삼림훼손은 매년 남미의 온두라스만 한 면적인 1천1백30만ha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5만종의 동식물이 멸종됐다.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배출증가로 95년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15.39도로 최고기록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김대통령의 연설은 비무장지대의 그린벨트화, 핵폐기물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내의 환경문제를 무시한다면 환경의교는 고사하고 환경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정성운 기자



세계 185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해 열린 유엔 환경특별총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DMZ 생태계보존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제의했다.

“서로 화합해야 위기 극복”

를교의 눈

경전 곳곳에서는 환경보호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리고 있다.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말라. 물속에 짐을 빨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붓을 파우지 말라." (사분울) "꽃잎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중요성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을 활

력을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회향품> 화합을 당부하는 가르침은 국가간의 의견차이가 극심한 오늘을 향한 가르침이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며,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중일아함경 제16>

지계 금주 파계

자자제-상공인 회사 공동설립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상공인들과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5월 24일 현재 공동 설립한 무역회사는 경남무역 경북통상 재주교역 전남무역 전북통상무역 등 5개. 강원도와 충청도는 회사설립을 검토중이다.

항공의용소방대 구제활동

...시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119활동을 벌이는 항공의용소방대가 27일 출범했다. 초경량항공기 동호인 모임인 '대우항공' 소속 동호인 가운데 이전에 거주하는 12명이 나선 것. 이들은 인천시 용진군 관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송, 해상오염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인다.

선친추모 가족 시문집 펴내

...가족들이 선친을 기리는 추모시문집 <문송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의회 이계석의원 삼형제와 가족들. 이 책에는 이씨의 선친이 남긴 한시 7백수와 기행문, 후손들의 추모글, 삽화 등이 실려 있다. 이 부의장은 "선친의 자식사랑을 다스림 깨달게 됐다"고 말했다.

국의원 주차장 불법낙찰

...구의원, 구청공무원, 주차장업자 등 16명이 결탁해 강남구청 관내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낙찰받아 운영해오다 24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강남구청 관내 31개 노상주차장 가운데 27개소를 사전담합 수법으로 낙찰받았으며, 구청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댓가로 3천6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염산처리 파래없는 김 '주의'

...파래없고 새까맣고 푸석푸석한 김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김에 잡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염산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서울지검은 23일 김의 성분분석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전 수산과과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전문가들은 김에 파래가 섞여 있는 김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일가족 음란CD 복제 판매

...일가족 4명이 음란 CD를 대량복제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25일 김모씨(47.전)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들과 언니 조카를 불구속기소했다.이들

은 시가 3천9백만원 상당의 음란 CD를 등을 무단복제한 뒤 컴퓨터통신망에 광고를 내고 우편으로 중고생들에게 판매해왔다.

육군중사 5억대 횡령 도주

...육군중사가 5억5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도주했다. 육군은 24일 민간인에게 돌려줄 사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중앙경리단 이모중사를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했다.

법무사 수입료 횡포심하다

...법률지식을 모르면 법률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법무사들에게도 횡포를 당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무사서비스업무와 관련한 불만사례 가운데 수입료 과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관련 업무수임시 수입료 기준금액보다 평균 2백87%나 높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탕주의가 저지른 살인극

...한탕주의가 또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일식집주인을 납치살해, 암매장한 범인 3명이 25일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암정동에서 고급차를 몰고다니는 부자를 납치해 한탕하자고 모의했다"고 말했다.

불교 성지 - '직접 체험'

세연여행사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한국사찰 녹야원서 요가·명상 수행 인도스님 초청 불교역사 특별강연 인도 현지에서 인도인의 정신과 혼을 배우고 세계속의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성지순례 테마상품이 나왔다. 최근 세연여행사가 선보인 '인도·네팔 불교성지 순례 및 수련대회'는 목적성 배양여행보다는 정형화되고 패키지 여행 상품보다는 실속형이며 여행자가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여행상품인 것이다.

불교의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인에게는 불교의 근본 도량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고 비불교인에게는 인도와 인도인의 정신세계를 체험하도록 하는 '제1회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및 수련' 상품은 단순히 인도의 불교성지를 둘러보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니, 처음으로 설법을 행했다는 사르나트, 45년간 각지를 돌며 설법을 한후 80세에 입적한 곳 쿠시나गर등 불교의 유명 성지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인도내 최초의 한국사원 녹야원에서 인도의 전통 명상법인 위빠사나의 입문, 요가 실습체험등 실제 수행을 하게된다. 11박12일 일정의 이번 행사는 7월부터 9월까지 계속되는데 1차 7월 22일, 2차 8월 5일, 3차 8월 26일, 4차 9월 13일 각각 출발하며 수련행사가 치러지는 녹야원은 석가모니의 초전법륜지토 인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불교 성지인 바라나시에 위치한 최초의 한국사원으로 인도인들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한국과 인도를 연결시켜주는 창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연구원과 한방 무료 침술원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참석자들에게 불교 교리의 이해와 더불어 인도와 세계 불교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 세연여행사 이효주차장 02-738-5781, 738-1303)

수련대회 일정표

Table with 3 columns: Day, Location, and Event.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Buddhist pilgrimage and training event, including arrival in Seoul, departure for India/Nepal, and various activities like yoga, meditation, and cultural performances.

"불교달력 전문 생산 인쇄소에서 행사용 부채와 벽걸이 족자를 권해 드립니다."

부채 - 500개 이상 주문 하시면 사찰이름, 주소 및 원하시는 문안을 넣어 드립니다. - 2,000개 이상 주문시 사진이나 그림을 원하시는 대로 넣어 인쇄해 드리고 출장 촬영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족자 - 원단 : 청·백공단, 적색공단 - 크기 : 90cm x 30cm - 인쇄 : 금박 및 적색잉크 (경면주사 약간 첨가) - 내용 : 반야심경, 보광삼매론, 마음을 다스리는 글 등 20여종 \* 주소 및 기념하시고 싶은 내용을 인쇄해 드립니다.